



[하스스톤] 2023년 12월 야생 덱 추천 - 짝...

얼마 전 하스스톤 복귀 후 정규 전설을 달성했습니다....

blog.naver.com

정규, 야생 전설을 달성한 뒤 마지막으로 변칙 전설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변칙 모드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식 시즌이 올해 9월에 시작된 비교적 최근 출시된 모드라서 그렇습니다. 자세히 궁금하시면 하스스톤 게시글 한 번 읽어보세요.

변칙전 출시

하스스톤의 최신 모드, 변칙전의 첫 공식 시즌을 맞이하여 불가사의 형식...

hearthstone.blizzard.com

변칙은 쉽게 말해 직접 덱을 짤 수 있는 투기장입니다. 시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세트가 바뀌고, 해당 세트 안에서 덱을 짜서 등급전을 즐길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칙전과 함께 출시된 야생전 전용 확장팩 '시간의 동굴'만 빼고 보면 영락없는 2017년 초중순 하스스톤입니다.



덱을 찾아보니 해적 전사, 열방 법사, 말리 도적, 신병 기사 등등 선택지는 다양했습니다. 정규에서 어그로 성기사로 전설을 달성했기에, 금방 익힐 수 있을 것 같았던 신병 기사 덱을 채용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변칙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모드라서 그런지 상대 찾는 데 정규, 야생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설 달성 후에는 3분 넘게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약간의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정보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변칙 관련 정보 글은 '돌 마이너 갤러리' 변칙덱 카테고리에서 그나마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돌 마이너 갤러리 - 커뮤니티 포털 디시인사이드

다양한 주제의 돌에 대해서 토론하는 곳 입니다. 돌갤, 하스스톤도 스톤이...

gall.dcinside.com



운영 방법에 대해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 선공은 1코스트 카드로 시작하여 최대한 코스트를 맞춰 카드를 내고, 후공은 1/3/3으로 2턴에 동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코 '남쪽바다 갑판원'으로 패치스 소환 후 3코 '울다만의 수호자'로 패치스를 3/3으로 만들거나, 1코 '길 잃은 신병들'로 신병 소환 후 3코 '빛이 주입된 스테고돈', '전투마 조련사' 등으로 시너지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파워 인플레이션이 덜한 시기의 세트들로 이루어져 있어, 초반에 게임을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드 싸움으로 하수인 정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광역기는 보통 2코스트와 4코스트 사이에 있습니다. 상대의 광역기를 배제한 것처럼 플레이하되, 광역기를 맞더라도 필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 천상의 보호막 하수인 위주로 필드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기사 텍인 데다가 영웅 능력도 하수인 소환이기 때문에 너무 광역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 드로우 카드는 '신의 은총'이 유일합니다. 상대방이 도적이나 흑마법사, 마법사처럼 드로우를 많이 보는 직업이고 초반 코스트 안배가 되는 상황이라면 멀리건에서 한 장 챙겨가면 좋습니다.

- '태양지기 타림'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부터 조금씩 딜을 누적시키고, 후반부 필드에 하수인을 최대한 많이 늘린 후 '태양지기 타림'으로 그로기 상태까지 몰아붙인다는 느낌입니다. 이 카드 또한 '신의 은총'과 마찬가지로 여유가 된다면 멀리건 단계에서 챙겨가면 좋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칙은 매칭에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가장 빨리 전설 달성에 성공한 모드입니다. 전설 등수 두 자릿수로 처음 진입해서 한 자릿수 달성까지 성공했네요. 높은 등수에서는 이기더라도 등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유저도 적은 데다 덱이 정형화되어 있어 그냥 강한 덱 꾸준히 플레이하면 쉽게 높은 등급 전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등수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변칙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변칙 전설을 끝으로 이번 달 모든 등급전의 전설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는 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이런 짓을 했나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경쟁과 비교라는 게 참...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싫다가도, 남들보다 높은 등수에 있으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경쟁이 너무 쉬워도 재미가 떨어지고, 너무 힘들면 지치고, 어쨌든 나는 높은 등수일수록 좋고. 정말이지 까다롭습니다. 역시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니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고!"

하스스톤 시네마틱 영상에 나오는 말마따나 노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재미있는 경험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덱 코드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만의 성기사 덱
직업: 성기사
대전 방식: 변칙

2x (1) 길 잃은 신병들
2x (1) 남쪽바다 갑판원
2x (1) 은빛십자군 종자
1x (1) 해적 패치스
2x (2) 단검 곡예사
2x (2) 보호막을 쓴 꼬마로봇
2x (2) 수문학자
2x (2) 유령 들린 거미
2x (3) 병력 소집
2x (3) 빛이 주입된 스테고돈
2x (3) 신의 은총
2x (3) 울다만의 수호자
2x (3) 전투마 조련사
2x (4) 어둠에 맞서리라
2x (6) 탐험용 넓적갈
1x (6) 태양지기 타림

#

AAEEAZ8FApG8ArnBAg6nBdQF9QWxCPUN6g+zwQKDxwK4xwLZxwLHoATKoASU9QWupgYAAA=

=

#

이 텍스트를 사용하려면 클립보드에 복사한 후 하스스톤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세요.